

(KIC중국, 2021.3.16)

## □ 中 전문가 “올해 마스크 벗기 힘들어...젊은이들의 백신 접종 국가에 기여하는 일“

지난 10일 푸단(復旦)대학교 부속 화산(華山)병원 감염병과 주임 장원홍(張文宏) 의사는 인터뷰에서, 현 단계에서 젊은이들 스스로가 백신을 접종하는 일이 바로 가정과 국가에 대한 기여라며, 중국의 백신은 운반이 편리하고 안정성이 좋아 전 국민 접종에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을 수 있다면 빨리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원홍 의사는 올해 말까지 마스크 벗기 힘들 거라며, 중국은 아직 집단면역이 가능할 정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세계 코로나 사태도 여전히 만연한 상황에서 마스크는 방역에서 시종일관 요구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접종’ 과 ‘전 세계 코로나 사태’ 두 가지 조건이 요구치에 도달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마스크를 벗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장원홍 의사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부터 전 세계가 재개될 텐데 이 전에 확실하게 백신 접종 완료로 유입성 리스크에 대응해야 한다며, 백신은 올해 안으로 신속하게 맞는 것이 가장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 접종이 쉽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人民网, 2021.3.15.)

## □ IOC위원장 “中올림픽위원회, 도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 선수에게 코로나 백신 제공”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11일 열린 IOC 제137차 총회에서, 중국올림픽위원회에서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고, IOC에서 이 백신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으며, 중국올림픽위원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바흐 위원장은 모든 IOC 위원과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게, IOC 측에 중국올림픽위원회에서 ‘매우 선의적’ 지원, 즉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선수들에게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알려 왔다고 전하며, 이 백신은 두 가지 방식을 통해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국제 파트너를 통한 협력 방식이고, 두 번째는 중국과 백신 협력을 체결한 국가와 지역에 직접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바흐 위원장은 “우리는 중국올림픽위원회의 지원에 매우 감사하며, 이는 진정한 올림픽 단결협력의 정신을 구현한 것” 이라고 말했다.

바흐 위원장은 또 “IOC의 백신 비용 부담은 올림픽 대표단과 패럴림픽 대표단 모두에 해당한다. 또한 올림픽과 패럴림픽 대표단은 1회분 백신을 접종할 때마다 IOC에서 이들 대표단의 해당 국가와 지역에 별도로 2회분 백신을 제공해 이들 국가와 지역의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동의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안전한 개막을 보장해 ‘이정표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IOC는 백신이 세계 각국과 지역에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백신 공정 분배 촉구 선언문’ 에 서명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人民网, 2021.3.12.)